

6. 편측 성대마비 환자에서 hyaluronic acid를 이용한 성대 주입술의 유용성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

손영익*, 정영준, 이승원, 정한신, 백정환

배경 및 목적 : Hyaluronic acid(HA)는 세포외기질의 주요성분인 glycos-aminoglycan의 일종으로 항원성이 없고 생체 내 분해 시 염증반응이 남지 않아 주름 제거 등 피부 주입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. 성대의 점막과 비슷한 점탄성도를 가지고 있고 다루기 쉬워 성대 주입물질로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편측 성대마비 환자에서 그 유용성 및 안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2003년 12월 이후 편측 성대마비로 진단 받고 hyaluronic acid (Rofilan®, TRM Korea, Seoul)를 이용한 성대 주입술을 시행 받은 26명의 환자 중 술전, 술후 1주째 음성검사를 받은 14명과 술후 3개월까지 음성검사를 받은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성대 주입술은 굴곡내시경으로 주사침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경피적으로 시행하였고, 음향분석과 공기역학검사, 후두회선경검사, 청각심리검사 및 주관적인 호전 여부를 각각 평가하고 Wilcoxon's signed rank test, paired *t*-test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.

결과 : 술전과 비교하여 술후 1주째 최장발성지속시간(MPT)은 4.26 ± 2.34 에서 8.87 ± 8.89 로, shimmer는 7.77 ± 3.98 에서 5.39 ± 2.14 로, GRBAS척도는 2.57 ± 0.49 에서 1.36 ± 0.89 로, 흡인지수는 4.21 ± 2.78 에서 2.01 ± 2.02 로, 환자의 주관적인 음성평가지수는 7.86 ± 2.23 에서 3.00 ± 2.51 로 각각 유의하게 호전되었다. 술 후 3개월째 MPT는 7.30 ± 3.60 , GRBAS척도는 1.20 ± 1.03 , 흡인지수는 1.00 ± 1.69 , 주관적 음성평가지수는 3.30 ± 2.41 로 술전에 비하여 유의한 호전이 유지되지만, 주관적인 만족도 및 MPT는 수술 후 1주에 비교하여 감소됨을 관찰하였다. 술식과 관련된 호흡곤란이나 부종, 염증반응 등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.

결론 : HA를 이용한 성대 주입술은 성대마비 환자에서 음성개선 및 흡인방지에 효과가 있으며,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단기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적절한 술식으로 판단된다.